증권 다이제스트

삼성증권

업계 첫 '통합증거금' 서비스

삼성증권은 통화에 관계 없이 주문전 별도의 환전 없이 바로 주문이 가능한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해외주식 주문 시 100달러를 환전해놨다면 100달러어치의 주식 주문이 가능하고 추가로 매수하고 싶으면 다시 환전을 한 다음 주문해야 했다. 하지만 삼성증권에서 제공하는 '통합증거금'을 활용하면 미국 달러(USD), 홍콩 달러(HKD), 일본 엔(JPY), 유럽 유로(EUR)에 한국 원(KRW)까지 통합해 해외주식 매수를 위한 증거금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환전 없이 바로 주문이 가능하다. 중국 위안(CNY)화는 3월 30일부터 된다. /김문호 기자

한국투자증권

노녹인 70억 한도 ELS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2일까지 홍콩 H지수(HSCEI), 유로스탁스50(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노녹인 파워스텝다운형 'TRUE ELS 10107회'를 총 7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연 5.6%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약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점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종가 기준)이 최초기준가의 60% 이상이면 16.8%(연5.6%)의 수익을 지급한다. 최소 가입 한도는 100만원이다. /김문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목표전환형 투자신탁 판매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23일까지 목표수익률 7%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하이 천하제일 중국본토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1호[주식혼합]'를 판매한다.

해당 펀드는 2012년부터 하이자산운용에서 공모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하이 천하제일 중국본토' 펀드를 최근 시장 트렌드에 맞게 목표전환형으로 설정하여 모집하는 형태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설정 후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자동 전환되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손엄지 기자

부동산부터 항공기까지 대체투자 '르네상스'

증권업계, 수익 기반 다지기

시중 자금 몰려… 투자처 다양화

증권사들이 대체투자(AI) 시장의 영토를 넓힉로 있다.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현금자산, 파생상품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군을 제외한 투자를 말한다. 주로 부동산, 선박 등 실물자산과 메자닌 채권, 부실채권 등과 같은 기업투자가 대체투자 범주에 속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조1000억원 규모의 파크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9000억원 규모의 나인원 한남 PF(시공사 대신F&I), 여의도 옛 MBC사옥 개발 PF 주관 등을 진행 중이다.

다른 증권사도 알파돔시티, 송도, 마곡지구 개발 등으로 수수료수익 확보 기반을 마련 중이다.

증권사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은 부동산이다.

투자처는 사무용 빌딩을 비롯해 호텔·물류센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코스모폴리탄 호텔에 9500만달러(1064억원)를 메자닌 형태로 투자했다. 이 호텔은 세계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블랙스톤그룹 소유다. 고정금리가 아닌 월 단위 변동금리를 투자 조건으로 해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확실한 상황에서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증권사 주요 대체투자 내역〉

증권사	대체투자 내역	금액
미래에셋대우	미국 LA 웰스파고 센터 메자닌 투자	330억원
	미국 라스베가스 코스모폴리탄 호텔 메자닌 투자	1,064억원
	독일 뒤셀도르프 글로벌 통신업체 보다폰 본사빌딩 매입	3,500억원
	경기도 판교 알파돔시티 부동산사업 투자	4,600억원
	국내 크리안자 에비에이션 항공기금융 투자	330억원
삼성증권	주택사업 관련 PF 지급보증 사업 확대	-
	인천시 복합분양아파트 사업 관련 신용보강 제공	-
한국투자증권	미국 워싱턴 NASA 빌딩 인수	4,000억원
	미국 LA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본사 매입	3,500억원
	벨기에 브뤼셀 아스트로타워 매입	2,300억원
	벨기에 브뤼셀 외교부 청사건물(장기 임차권)인수	4,800억원
NH투자증권	여의도 파크원, MBC사옥, 한남동 외인아파트 개발, 남대문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주관	5조 4,000억원
키움증권	대방 디엠시티 건설사업 자금조달	1,090억원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 투자상품의 다변화 및 해외인프라 등 신규투자 계획	-

/자료=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미국 워싱턴 NASA 빌딩 인수(4000 억원), 미국 LA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본사 매입(3500 억원), 벨기에 브뤼셀 아스트로타워 매입(2300 억원), 벨기에 브뤼셀 외교부 청사건물(장기 임차권) 인수(4800 억원) 등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삼성증권이 베스타자산운용과 함께 영국 레스티셔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2000억원에 매입한 것도 한 사례다. 당시 영국 물류 업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려 눈길을 끌었다.

키움증권은 대방 디엠시티 건설사업 자금조달(1090 억원) 외에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 투자상품의 다변화 및 해외인프라 등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다.

증권사는 항공기와 에너지 투자에도 관심이 높다. 항공기 투자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항공기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거나 대출하는 방식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 IB 출범 이후 대만 국적 항공기를 사들였다. 국내 금융사가 대만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를 사들인 건 처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사들인 항공기를 다시 중화항공에 대여한 후 리스료를 받아 이자와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KTB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항공이 운항 중인 에어버스 A330-300를 중국 리스사에게 약 1000억원에 인수했다. 투자자는 4년간의 운용기간 동안 리스료(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다.

KB증권은 국내 부동산 투자 사업을 넘어 올해는 해외 부동산과 SOC 등 대체투자 사업 강화에 나섰다.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린 후 해외 대체 투자사업에 뛰어들 여력이 생긴 것. PF주선으로 호주 바이오에탄올 공장 건설(약 1200억원 규모)에 투자하며 대체투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기존의 항공기 사업투자 외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다.교보증권은 그간 1억달러 이상의 굵직한 딜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항공기 투자 부문에 있어서 업계 내 선두를 구축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25분이면 수서 도착… '힐스테이트 천안' 내달 분양

현대건설 451가구 규모

교육·편의시설·산책로 가까워

현대건설이 오는 4월 충남 천안시 문화동 동남구청 부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힐스테이트 천안'을 선보인다. 59~84㎡ 45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64가구 ▲74㎡ 123가구 ▲84㎡ 164가구 등이다.

국철 1호선 천안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전철 3정거장 거리에 KTX천안·아산역이 있어 서울역 약 40분, 광명역 약 20분, SRT 수서역 약 25분이면 도달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국도, 버들로, 오룡지하차도 등 천안의 주요 도로망과 가깝다. 특히 천안역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경부선 천안~서창 복선화와 충북선 서창~청주공항 선형개량 등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이 진행 중이다.

4월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천안' 투시도. /현대건설

남산초, 천안제일고, 천안중, 천안북중, 천안여중, 천안중앙고, 복자여중·고, 중앙도서관,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등의 교육시설이 있다.

단지 반경 2㎞ 이내에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CGV, 순천향대 천안병원, 천안역전시장, 천안역지하상가, 천안시외버스터미널 등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흑성산, 봉서산, 하천산책로 등과 가까워 등산이나 산책 등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인 '하이오티(Hi-oT) 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공동현관출입이 가능하고,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17번지에 4월 중 개관하며, 입주는 오는 2021년 3월 예정이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천안 주변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KRX300, 자본시장의 대표지수로 정착… 재테크 상품도 잇따라

Advertorial Corner

KRX300 지수 추종 ETF 26일 출시

KRX300이 자본시장의 대표지수로 빠르게 정착했다.

KRX300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지수로 코스피(238종목)와 코스닥(67종목) 시장의 우량종목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KRX300지수가 코스피에 집중된 자금을 코스닥으로 분산 유도하면서 균형 잡힌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RX 300
케이알엑스 300

아울러 지난 달 기획재정부가 "위탁운용 유형에 KRX300 벤치마크 지수를 적용하면 기금운용평가 가점을 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공제회 등이 벤치마크 지수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수만 놓고봐도 투자가치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300은 2017년 이후 누적수익률(3월 16일 기준) 27.76%를 기록했다. 이는 코스피 중심 지수인 코스피200이 같은 기간 24%의 누적수익률을 기록한 것보다 좋은 성적이다.

지수를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300지수를 추종하는 ETF 6종이 오는 26일 일제히 출시된다. KRX300 지수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비율대로 수익률과 손실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KRX300 ETF의 초기 설정액은 4500억원 규모로 삼성자산운용을 비롯해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이 시장 쟁탈전을 벌인다.

한 달여 전 KRX300지수가 발표되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스마트KRX인덱스펀드1'을 시작으로 KRX300 지수를 추종하는 9개 인덱스 펀드가 줄지어 선보였고, 약 37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KRX300 선물 지수는 오는 26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선물시장이 열리면 ETF이 수익률이 KRX300지수 상승률의 2배로 정해지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발생하는 인버스 상품이 나올 수 있다. 뒤이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거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